

아시아 여성미술가들

〈아시아현대미술전 2017〉에는 아시아권 10개국에서 24명이 참여했다. 오히려 솟구치는 아시아 여성미술을 불러들인 것이다.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은 꿈은 물처럼 솟아올라 박차고 나오는 여성미술을 한 자리에 모았다.

정치적 혼란과 개인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힌 아시아에서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현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변화를 갈망하고 자기실현의 욕구를 거침없이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아시아 미술을 전북에 불러들이고, 전북미술을 아시아로 나가게 하는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아시아현대미술전과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전북미술가를 아시아권에 파견하고, 아시아권 미술가를 전북에 불러들이면서 지평을 넓혀갈 것이다. 확실한 것은, 흐르는 것은 멈추기를 거부한다.

전북도립미술관

ASIA WOMEN ARTISTS

Twenty-four artists from 10 Asian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Asi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2017]. This invited a dynamic Asian female art. “Asian female artists” gathered dynamically active female arts in one place.

In complex Asia where political confusion and individual identity. We each have different circumstances. However, we do not avoid the real problem, we face change and we crave change. We can meet works that express the desire of self-realization.

“Jeonbuk Museum of Art” brings Asian art to Jeonbuk. We are carrying out a project to bring Jeonbuk art to Asia. Through the Asi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and creative studio, Jeonbuk artists are dispatched to Asian countries. In addition, we will invite Asian artists to Jeonbuk to exchange and expand their influence. Certainly, flowing refuses to stop.

Jeonbuk Museum of Art

아시아현대미술전 2017

3rd ASI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전시기간 2017. 9. 1(금) - 12. 3(일)
개막식 19. 1(금) 16: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추석당일

관람시간 10:00 - 18:00 (입장권 구입은 17:00까지 가능)

전시문의 (063)290-6888 <http://www.jma.go.kr>

관람요금

구분	입장료		판매처
	성인	청소년(초·중·고)	
일반	개인 5,000	3,000	현장판매
	단체 20명 이상 4,000	2,000	
할인	NH 채움카드 (메카드도 포함)	· 개인에게 단체요금 적용	
	전북 투어패스	· 개인에게 50%할인 적용	
	예술인 패스	· 개인에게 단체요금 적용	
	나눔카드	· 개인에게 단체요금 적용	
	온라인 예매	·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 개인에게 단체요금 적용	온라인판매
무료	·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군인 · 장애인 1~6급, 동반 1인까지, 미취학 아동(만 5세 이하) · 유치원, 초·중·고 단체 20명 이상의 경우 인솔자 무료 · 개막당일(2017.9.1) 입장객 ※ 신분증 제시, 매표소에서 무료티켓 발권 필수		

국제여성미술컨퍼런스

2017. 9. 2(토) 10:00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회의장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무료 체험 안내

2017. 9. 1(금) - 12. 3(일)

‘두근두근 아시아’ 대상 유아·어린이·청소년 개인(현장 상시 참여)

구분	체험내용	운영시간	장소
개인	1) 전시 활동지 2) 나도 예술가! 3) 윤석남 미술가의 ‘화이트 룸’을 꾸며 보세요 4) ‘콜라주(collage)’란?	10:00 - 17:30 (정식시간 12:00 - 13:00)	전시실 체험실

‘예술가 공방’ 대상 청소년 단체(사전 예약)

구분	체험내용	운영시간	장소
단체 (20명 이상)	1) 스크래치 액자 만들기 - 초등학생 2) 도자기 잔디인형 꾸미기 - 중학생 3) 컵받침 꾸미기 - 고등학생	1회 - 10:30 2회 - 11:30 3회 - 13:30 4회 - 14:30 5회 - 15:30 6회 - 16:30	체험실 · 소요시간 30분 · 재료소진 시 행사종료

단체예약 |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http://www.jma.go.kr>) - 교육/행사 - 체험/문화행사 문의 | 063)290-6877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원거리 1068-7)

Tel. 063)290-6888 Fax. 063)290-6879, 6889

후원 NH농협

아시아현대미술전 2017

3rd ASI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ASIA WOMEN ARTISTS

2017. 9. 1 -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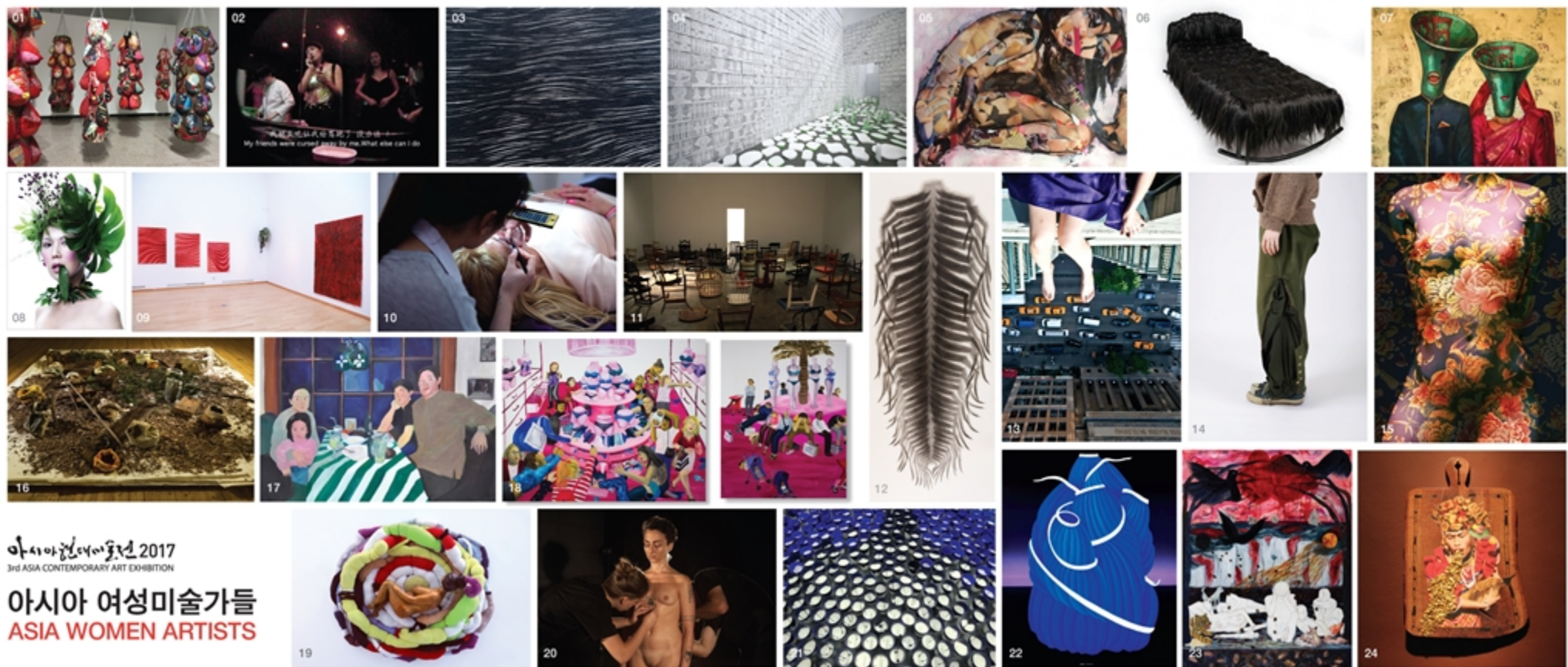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



주최

전북도립미술관
Jeonbuk Museum of Art

JTV 전주방송



아시아현대미술전 2017
3rd ASI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아시아 여성미술가들 ASIA WOMEN ARTISTS

01. **궈젠 Zhen Guo** 권투 선수의 무거운 샌드백에 여성의 젖가슴을 화려한 색상과 문양이 있는 천으로 만들어서 꿰매었다. 이성 관계에 있어 자주 확대당하고 지배당하는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02. **추이쑤원 Xiuwen Cui** 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몸단장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담은 여성 정체부들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상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로 담은 영상이다.

03. **강성은 Seongeun Kang** 열기로 가득한 휴더미를 감싸고 있는 비닐 덩어리를 보았다. 산업적 재료인 비닐에 검은 고무테이프를 겹겹이 쌓아 올리며 그 반짝이는 결들과 그 아래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04. **윤석남 Suknam Yun** 죽음을 미술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흰색은 무한한 공간을 말하고, 연꽃으로 죽음 이후의 무한한 어떤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녀에게 죽음의 의미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05. **난딘에르데네 부자그드 Nandinerdene Budzagd** 여자가 아름다움만 추구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파문이 크다는 생각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말한다. "내 콜라주가 망가진 마음을 잘 보여주기를 바란다" 라고.

06. **디타 감비로 Dita Gambiro** 디타 감비로는 머리카락을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자신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진 침대를 검은색 머리카락으로 뒤덮어서 관람객에게 복잡한 감정을 일으킨다.

07. **부블리 바르나 Bubly Barna** 여성들에게 폭력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이 건더야 하는 현실문제의 깊이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이는 여성들의 억압에 대한 비유적 관념의 형이상학적 표상이다.

08. **푸피루 Pyyupiru** 푸피루는 트랜스 젠더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를 담은 사진. 성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을 예술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09. **강현덕 Hyunduck Kang** 어릴 적 기억들을 곁집어냈다. 집 이야기로 시작해 유년의 기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광범위하게는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 더 좁게는 여자를 이야기이다.

10. **응우옌프엉민 Linh Phuong Nguyen** '외국의 하얀 안개'는 독일에서 손톱 관리실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 이민자들과 함께 만든 장기 프로젝트 과정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입방체 속에 핑크빛 네온 불빛만 존재한다.

11. **조숙진 Sookjin Jo** 수년에 걸쳐 길거리나 벼룩시장, 낯선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더는 쓰지 않는 의자를 얻었다. 벽과 마주한 의자들은 한때 그것들이 존재했던 장소와 시간적인 운동성을 담은 채 조명을 응시하고 있다.

12. **김설아 Seola Kim** 도시에 부유하는 먼지, 재, 깃털, 벌레 같은 존재하지만 인지하기 힘든 수많은 대상에서 나의 기억에 맺힌 이미지를 찾아내어 세밀한 촉감을 통해 성의 이미지를 가시화하고 있다.

13. **안준 Jun Ahn** 도시의 고층 건물이나 절벽의 경계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경계에 놓인 자신의 몸을 통해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심리적 경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이록현 Lochyun Lee** 이식 대부터 입던 옷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오래도록 버리지 못한 옷이긴,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옷이긴, 간혹 그것들을 뜯어내고 이어 붙이고 꿰매며 집어넣으려 한 것들을 등장시켰다.

15. **차유림 Yurim Cha**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성 의식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 보고, 동시에 여성의 진정한 자아회복과 주제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16. **서은희 Yoonhee Suh** 얼룩과 번짐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과 본질을 성찰했다. 자연재료나 약 등을 우려낸 염료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회화의 과정은 사유의 공간이며 동시에 삶의 흔적을 표현한 시간의 결과물이다.

17. **박성애 Sungae Park** 식탁에서 기념촬영 하듯 관자를 바라보는 가족 풍경.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들을 감칠맛 나게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으로도 담고 있다.

18. **황하이신 Hai-Hsin Huang** 현대사회에서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심복함, 우리 안에 있는 유머와 비극, 삶의 정경함, 그리고 나약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19. **고보연 Boyun Ko** 여성이기에 참아야 했고, 강요당해야 했던 여성의 몸을 종으로 캐스팅하고, 그 몸에서 지란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다. 재활용한 천으로 만든 머리카락은 많은 사람의 흔적과 애환을 녹여내고 있다.

20. **레만 세브다 디리지오루 Leman Sevdä Daricioglu** 레즈비언으로서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신의 몸에 문신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작품을 통해서 허구와 실제 사이의 차이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21. **이하운 Hayoon Jay Lee** 젊은 대상이고, 모티브이며, 메타포로 작품의 중심적 소재이다. 세밀하게 묘사한 발알들은 무한한 재성을 암시한다.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손가락은 공존과 공유를 의미한다.

22. **경강자 Kangja Jung** 여성적 삶과 사회성을 그린 회화 작품이다. 그녀의 그림은 쉽게 삶을 깨닫게 하면서 초현실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유한한 인생'과 '한복의 모뉴먼트'는 한복의 이미지와 선을 응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했다.

23. **고동어 Mackerel Safranski**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의 감정과 흔적들을 구상회화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연필 드로잉으로 신체를 표현한 작업은 세계를 경험해 낸 신체들의 실감과 변형을 표현한 작업이다.

24. **제이즐 크리스틴 Jazel Kristin** 생체가 난 도마 위에 소비하면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콜라주 한 작품이다. 여행 중에 사진에 담은 음식과 사람들의 이미지들을 이용해 소비지상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했다.